



성시화(聖市化)운동의 새로운 방향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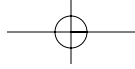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I. 서론

1. 문제제기

한국의 성시화운동은 이제 한국교계에 큰 흐름을 이어내는 물줄기이며 한국사회에서도 그 운동의 영향에 어느 정도의 인지를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주류 운동이 되었다. 이 성시화운동은 많은 도시에서 진행되었고 또 각 교회들마다 전도의 새로운 도전과 복음화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 개인영혼구원이 지역, 사회, 도시에 파급적 영향을 끼치며 도시를 바꾼다는 새로운 전도의 각성이다.

하지만 그 지대한 영향의 이면에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특정 종교 활동의 모습이 비춰지고 이 일에 지역, 정치 지도자의 참여로 종교편향적 비판을 받게 되었다. 결국 타종교의 반응을 살펴야하는 시대가 지금이라는 것이다.¹⁾ 또 교회가 현세대의 도덕상과 바른 윤리적 선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옳은 일이겠으나 이것을 선포하는 교회가 도덕적 자신감이 없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즉 한국교회가 윤리적 문제에 자정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대한 한국사회로부터의 조소를 피할 길이 없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 하겠다.

1) 권혁률, "서울성시화운동과 여론", 『새가정』 제53권(2006), 107.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이런 성시화운동의 역사를 살피고 이 한국교계에 불고 있는 성시화운동이 본 연구자가 속한 장로교 신학전통인 개혁주의신학과의 연관성을 따져 보고자 한다. 이를 계기로 정말 한국교계에 필요한 복음전도의 바른 방향은 무엇인지 개혁신학적 입장에서 논함을 통해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서의 사명을 다하는 일에 작은 보탬이 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3. 연구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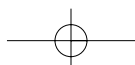
본 연구는 성시화운동의 역사와 개혁신학과의 상관성, 그리고 한국교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한정한다. 성시화운동의 긍정적, 부정적 평가들이 많으나 모두 뒤로하고 고(故) 김준곤목사의 성시화운동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성시화운동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특히 개혁신학은 칼빈의 제네바시 개혁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한국 성시화운동과의 상관성을 밝히고 대안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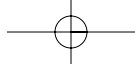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II. 한국교계에 부는 새로운 바람 성시화운동

1. 성시화의 역사

한국교계의 성시화운동의 기원은 1972년 춘천시를 중심으로 김준곤목사((1925-2009)를 통해 시작되었다. 즉 이 성시화운동은 이제 40년째를 맞이한 것이다. 그동안 각 도시에서 성시화대회가 개최되었고 교단의 장벽을 넘어 서로 협력하는 교회운동의 장이 되었다. 성시화의 개념을 밝히는 바 “성시화운동을

2) 한국성시화운동의 정체성은 다음의 책을 통해 밝힌다. 김준곤, 『성시화운동 편람』(서울: 순출판사, 2005).





개념화시킨다면 전 교회(Whole Church)가 전 복음(Whole Gospel)를 전 시민(Whole City)에게 전하는 전교인 전도인화, 제자화, 전시민 신자화,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명령을 받았습니 다.”라는 주장에서 알 수 있다.³⁾ 이 3전(Whole) 전략으로 이루어가는 운동이 한국 성시화운동이다.

2. 성시화의 배경

성시화 운동의 배경을 김준곤목사는 칼빈의 제네바시 개혁에 두고 있다. “성시화운동의 배경에는 1530년대의 칼빈의 제네바가 어린이들의 영아교육부터 전 시민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성경이었고 시의회와 행정과 사법의 기본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것을 모델로 삼은 것이다.”⁴⁾ 그리고 성시화운동을 설명하는 여러 글들 속에서도 칼빈의 제네바시 개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성시화운동에 칼빈의 제네바시 개혁과 상관관계가 있을까? 다시 질문한다면 ‘한국 성시화운동의 배경이 제네바시 개혁운동이 되느냐?’ 라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시화운동 사역자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들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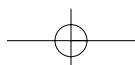
1996년 춘천성시화운동본부가 설립되고 이 운동에 전용태 장로(변호사)와 양인평 장로(변호사)가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⁵⁾ 전용태 장로는 평신도 홀리클럽(holy club)과 목회자홀리클럽을 통해 또 다양한 직능별 홀리클럽을 통해 성시화를 이루어가야 함을 말한다. 즉 성시화운동은 홀리클럽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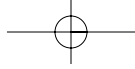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사실 성시화운동의 배경은 이 홀리클럽이다. 역사적으로 웨슬리(John

3) 김준곤, 『성시화운동 편람』, 5.

4) 김준곤, 『성시화운동 편람』, 4.

5) 임성택, “성시화운동에 대한 연구와 전망”, (총신대학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47.





Wesley: 1707-1791)의 옥스퍼드대학에서의 홀리클럽에서 시작된다.

Ⅲ. 성시화의 뿌리 홀리클럽

1. 홀리클럽

1729년 감리교의 창시자인 영국목사로 웨슬리는 동생 찰스 웨슬리(Charles Wesley)가 이미 그해 5월 진지한 배움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위해 조직한 모임이 있는 옥스퍼드대학교에 11월에 오게 된다. 여기서 성결을 추구하는 작은 제자들의 클럽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홀리클럽의 출발이 된다.

홀리클럽은 이 클럽모임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 윌리엄 로우(William Law)는 기독교란 “성스러운 훈련과정이고 타락한 영혼을 고치고 회복시켜 우리들의 성경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변화를 일으키고 높은 차원의 행복으로 우리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봄으로써 성경적 삶으로의 변화를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⁶⁾ 이 홀리클럽은 성서연구와 고전의 영성 서적 연구, 개인의 성실성과 선행을 통한 성화된 삶을 강조하는 경건생활, 신앙을 사회생활 속에서 실제로 사랑을 통해 실천하는 선교활동 등으로 활동하는 단체였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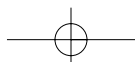
한국교계의 성시화운동은 홀리클럽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홀리클럽은 감리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성경공부와 개인경건, 그리고 이것이 사회생활 속에서 사랑실천을 통해 이루어지는 선교활동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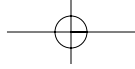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2. 메소디스트(methodist)

이런 자신에게 엄격한 신앙패턴을 가졌던 이들을 메소디스트라고 부르기 시

6) 염시동, “웨슬리와 홀리클럽 운동에 관한 연구”, 『대학과 복음』 제3권(1999), 29.

7) 염시동, “웨슬리와 홀리클럽 운동에 관한 연구”, 44-5.





작했고 이들은 곧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규칙적이면서도 조직적인 행동을 하는 이들로 이해되어졌다. 이 홀리클럽을 통해 메소디스트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고 이 운동은 성경연구, 빈민과 병자를 돌보며 전도하는 일에 힘쓰게 된 것이다. 오늘날 성시화운동은 이 종교적 의무를 다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는 이 메소디스트정신을 이어받은 운동이라고 하겠다.

IV. 칼빈의 제네바시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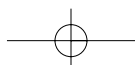
『성시화운동편람』에서 밝히고 있는바 한국 성시화운동의 배경을 칼빈의 제네바 개혁에 두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그 상관관계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다음 연구를 통해 불연속성을 밝히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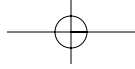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1. 칼빈의 순례의 길

프랑스의 신교박해는 ‘프랜카드 사건’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⁸⁾ 이 박해로 인해 칼빈은 프랑스를 떠나 순례 길에 나섰고 이 길이 개신교의 사상적 집대성과 종교개혁의 2세대의 대업을 이루는 업적을 이루는 길이 되었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의 최고의 저작인 신학교전 『기독교강요』를 저술하게 되었다.⁹⁾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학문과 저작활동으로 부르셨다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학문 활동을 조용히 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고 거기는 바젤이었다. 그는 이곳 1535년 1월에 도착하여 일 년 남짓한 시간동안 『기독교강요』(완성은 1535년 8월, 초판 1536년 출판)라는 수작을 저술하게 되었다. 이는 당시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의 저술이 당면한 논쟁점만을 언급하는데 그쳐 기독교

8)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책 참조. 이상규, 『개혁주의란 무엇인가?』(부산: 고신대학교출판부, 2007), 87.

9) 이상규,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88.





교의 기본교리와 신학에 대한 필요를 채우는 저작이 없던 때에 프로테스탄트의 신학적 개요를 저술한 것이다.¹⁰⁾

칼빈은 이후 종교적 확신으로 망명을 결심하고 조국 프랑스에 돌아가서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여 스트라스부르그로 다시 여행길에 올랐다. 이때 스트라스부르그는 다른 어느 도시보다 종교적 관용의 도시였고 프로테스탄트들이 득세한 지역이었으므로 칼빈의 활동에 더없이 안전한 곳이었다. 그러나 그의 걸음은 그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져 있었는데, 훗날 칼빈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조용히 살게 버려두지 않으셨다’ 고 말한 극적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프랑스에서 스트라스부르그로 가는 도중 우회로를 통해 제네바로 향하게 된 것이다. 그 이유는 당시 프란시스1세와 찰스 5세의 세 번째 교전이 시작하려는 즈음이었다.¹¹⁾ 즉 합스부르크가(家)와 발로이스 간의 전쟁(Hapsburg-valois wars, 1536-1538) 때문에 스트라스부르그로 직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¹²⁾

2. 칼빈과 제네바시와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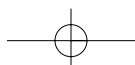
당시 주교가 없는 제네바에 1532년 도착하여 종교개혁운동을 주도하고 있던 기욤 파렐(Guillaume Farel, 1489-1565)은 칼빈의 제네바 방문소식을 듣고는 칼빈에게 제네바에 남아서 개혁운동을 전개할 것을 요구하였다.¹³⁾ 하지만 칼빈은 학문연구에 뜻을 두고 있었기에 파렐의 요구를 거절하고 파렐은 “당신이 만일 이 절박한 도움을 거절한다면 당신이 학문 속에서 찾는 평안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책망하고 칼빈은 이 심각한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다. “마치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나에게 내려와 나를 잡는 것 같았다”고 한 칼빈에게 잠시 거쳐 가는 제네바도시가 그의 평생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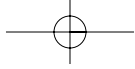
10) 이상규,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92.

11) John T. McNeill, 양낙홍 역,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6), 152.

12) 이상규,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95.

13) 이상규,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99-103.





사명지가 된 것이다. 이때 그의 나이가 27세였다.¹⁴⁾

이제 칼빈은 제네바도시를 개혁하는 목회자요 신학자로 부름을 받았다.

3. 제1차 제네바시 개혁(1536-1538)

칼빈이 처음 제네바시에 도착 했을 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제가 처음으로 이 교회에 왔을 때, 저는 이 교회에서 거의 아무 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설교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실 그들이 우상을 찾아내어 불사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없었으며, 모든 것이 무질서 그대로였습니다. ... 저는 여기서 끊임없이 투쟁 가운데 살았습니다. ... 비록 선한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의 나라는 고집 세고 사악한 나라입니다.¹⁵⁾

당시 제네바는 무질서 그 자체였다. 구교의 영향이 남아있고 재세레파의 세력도 퍼져있었다. 거기다가 시민들은 고집 세고 거친 무질서한 곳이었다. 당시 제네바시는 윤리적 수준이 낮은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 도시가 향락적 분위기를 띄고 있었다.¹⁶⁾ 칼빈의 개혁대상은 “첫째로 카톨릭적인 잔재들을 완전히 제거하고자 하였다. 둘째로 그는 사람들의 생활의 무질서를 개혁하여 성경 말씀에 따라 살게 하고자 하였다. 셋째로 재세레파들의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고자 하였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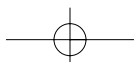
칼빈의 개혁을 위한 노력은 짧은 시간 안에 논란 속에 진행되었다. 그의 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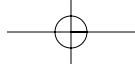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14) 이상규,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103.

15) Henry Beveridge and Jules Bonnet eds., *Selected Works of John Calvin: Tracts and Letters*, vol. 7, (Grand Rapids: Baker House, 1983), 373-4. 이은선, “칼빈의 제네바 교회 개혁 활동: 목회 활동의 관점에서”, (신학지평, 4, 1996, 12), 51. 재인용

16) 이상규, 『교회개혁사』(서울: 성광문화사, 1997), 147.

17) 이은선, “칼빈의 제네바 교회 개혁 활동: 목회 활동의 관점에서”, 52.





의지는 1537년 1월 16일 제네바 시의회에 제출한 ‘제네바 교회의 조직과 예배에 관한 조례’ (Articuli de regimine ecclesiae, he Organization of the Church and its Worship at Geneva)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¹⁸⁾

첫째 성찬식에 관한 것이었다. 칼빈은 매주일 성찬시행을 주장했고 당시 제네바시는 로마 카톨릭적 관례대로 연 2-3회 시행되었다. 칼빈은 성찬의 매주일 시행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더불어 바른 성찬의 시행으로 권징과 신자의 삶의 변화를 통해 신앙과 순종을 함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시했다. 하지만 매주성찬시행은 당시로서는 ‘혁명적’ 주장이었다.¹⁹⁾ 이는 월1회라는 타협을 이루었다.

둘째 엄격한 치리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정치권의 비호아래 개혁가들의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시대적 배경 속에서 신앙고백서에 전시민의 서명요구, 교회법을 제정하여 과오를 범한 신자들의 파문권 요구 등은 시의회와 갈등을 유발시켰다. 당시 주변 도시들의 상당수는 파문권을 교회가 아닌 시의회가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칼빈은 신자들의 삶의 성경적 개혁을 위해서는 목사들의 독립적 치리권을 보장해야한다고 본 것이다.²⁰⁾ 즉 칼빈은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치리권을 교회로 이관하려한 것이다. 이 파문권 문제는 시의회와 충돌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²¹⁾

교육개혁도 시도했다. 『제네바 신앙문답서』(Genevan Catechism)을 작성해서 청소년교육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1536년 11월10일 『신앙고백서』를 작성하여 1537년 2월 『제네바 교회를 위한 신앙지침과 신앙고백서』를 출판하고 1537년 4월 200인 회가 모든 제네바 시민들에게 이 고백서를 따르도록 서명을 요구하여 큰 불만을 샀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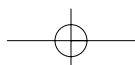
18) 이상규, 『교회개혁사』,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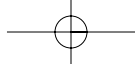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19) 이상규, 『교회개혁사』, 155.

20) 이상규, 『교회개혁사』, 155.

21) 이상규, 『교회개혁사』, 156.

22) 이상규, 『교회개혁사』, 157.





결국 성만찬, 치리권 그리고 로마 카톨릭적 잔재를 제거하기위한 고백서를 통한 제네바개혁은 치리권에 대한 시의회의 반발과 로마 카톨릭 신앙을 고수하려는 일부 로마 카톨릭 신자들과 교회적 치리(훈련)를 반대하는 이들에 의해 1538년 4월23일 파렐과 함께 칼빈이 제네바에서 추방당함으로써 22개월간의 제네바시 개혁은 표면상 실패로 간주되었다.

4. 칼빈의 스트라스부르크 경험(1538-1541)

종교문제에 매우 관용적인 스트라스부르크는 ‘의의 피난처’ 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다. 종교적 박해를 받는 이들에게는 희망의 도시였다. 이곳에서 개혁운동을 하던 부썬(Martin Bucer 1491-1551)는 제네바를 떠난 칼빈을 프랑스 피난민들을 위한 목회자로 올 것을 요청했다. 1538년 9월 칼빈은 이곳 스트라스부르크에 도착, 3년간의 목회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칼빈은 새롭게 태어났다. 칼빈의 신학자이자 교회지도자로서 새롭게 태어난 고향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 스트라스부르크였던 것이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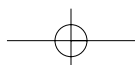
칼빈의 이곳 활동을 피난민을 위한 목회사역, 저술활동, 다른 개혁자들과의 교제 그리고 그의 결혼생활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²⁴⁾ 특히 부썬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곳에서 개혁교회적 성례, 예배의식, 교회정치, 치리와 훈련, 그리고 장로제도 등 칼빈은 이곳에서 많은 부분에 성장을 가져왔다.²⁵⁾ 이 스트라스부르크라는 종교적 자유의 도시에서 칼빈은 자신의 비전에 따라 실험적인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이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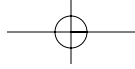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23) Herman J. Selderhuis, 조승희 역, 『칼빈』(서울: 대성닷컴, 2009), 125.

24) 상세한 내용은 이상규, 『교회개혁사』, 161-169를 참조

25) 이상규, 『교회개혁사』, 169.

26) Herman J. Selderhuis, 『칼빈』, 126.





5. 제2차 제네바시 개혁(1541-1564)

당시 시의회에 순종적인 제네바의 설교가들은 무력했다.²⁷⁾ 시의회는 정권을 잡고 있던 칼빈을 반대하던 정치세력은 물러가고 칼빈을 지지하던 세력이 정권을 잡았다. 특별히 제네바가 다시 ‘교회 연합을 회복하고 친숙하면서도 유서 깊은 로마 카톨릭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한’²⁸⁾ 사둘레토에 대한 칼빈의 명쾌한 답변²⁹⁾은 더 이상 제네바 시민들이 칼빈을 그냥 두지 않고 자신의 도시로 모셔오기로 결심하게 한다.

1541년 9월 칼빈은 제네바로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개혁활동을 재개하였다. 제네바로 돌아온 칼빈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제네바교회를 조직하고 교회규정을 확립하며 제네바시를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개혁하는 일이었다.³⁰⁾ 칼빈은 이 교회규정에서 ‘제네바시 개혁운동에서 자유, 질서, 훈련(치리)의 세 가지 점에 유의’³¹⁾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신앙훈련이 제네바시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질서와 훈련의 강조는 칼빈의 제네바시 개혁운동의 중심주제였다. 1541년 교회규정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신약성경의 원리를 따른 네 직분을 두었는데, 목사, 교사, 장로, 집사직으로서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직분으로 본 것이다.³²⁾ ‘교회 직분의 모든 권위와 가치는 실제로 직분자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직분 자체에 주어진 것이다.’³³⁾ 이 네 직분을 통해 제네바의 질서유지와 훈련을 감당하도록 했고 종교법원을 두어 교회에 속한 교리적 치리기관으로 삼아 수찬정지와 파문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 되게 했다. 이를 감독회(Consistorium, Consistory)로 불렀는데 목사 12인 장로 12인으로 구성된 치

27)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 39.

28) Herman J. Selderhuis, 『칼빈』, 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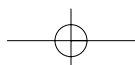
29) 사둘레토에 대한 칼빈의 답변은 박건택, 『칼뱅작품선집(Ⅲ)』(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9), 25-87.를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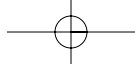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30) 이상규, 『교회개혁사』, 170.

31) 이상규, 『교회개혁사』, 171.

32) 이상규, 『교회개혁사』, 171.

33) 황대우, 『칼빈과 개혁주의』(서울: 도서출판갈뱅, 2009), 246.





리하다. 이는 교회에 속한 치리기관이었고 여기서 제네바는 장로교회적 조직이 세워진 것이다.

또 칼빈은 설교를 통한 기독교인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였다. 제네바에 만연한 미신적 신비주의로 변질된 로마 카톨릭적 예전중심의 예배를 말씀과 예전의 균형을 회복한 예배로 갱신한 것이다.³⁴⁾ 강단은 ‘우리 영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보좌’³⁵⁾로 생각했다. 계속적인 강해설교를 통해³⁶⁾ 말씀의 가르침을 통한 제네바시 개혁을 시도한 것이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빠짐없이 가르치기 위해 강해설교를 시행했고 성경말씀을 당시 사람들의 삶과 철저하게 연결시켰다. 즉 칼빈의 설교는 신자들의 삶을 말씀에 일치시켜 변혁시키겠다는 말씀개혁운동이었던 것이다.³⁷⁾

칼빈은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여 교회개혁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이미 언급한바 교회규정을 통해 교리적 순수와 교회개혁을 이루며 교회가 파문권을 포함한 치리권을 가지도록 노력하였다. 말씀을 통한 제네바교회의 개혁이야말로 제네바시의 개혁이라고 여긴 것이다. “기독교인의 생활의 핵심은 자기부정이며, 그 자기 부정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표현되고, 더 나아가 내세를 목상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였다.”³⁸⁾ 또 정당한 성례집행을 통해 교회개혁을 이루기를 힘썼다. 청소년교육을 위한 교리문답서 작성과 제네바 아카데미의 설립은 칼빈의 교육과 선교정신을 또한 보여준다.³⁹⁾

34) 이은선, “칼빈의 제네바 교회 개혁 활동:목회 활동의 관점에서”,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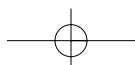
35) Herman J. Selderhuis, 『칼빈』, 1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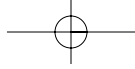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36) “칼빈은 다시 제네바에서 설교하기 시작했다. 다시 시작한 설교는 3년 전 떠나기 직전의 설교 내용이었던 성경강해였다.” Herman J. Selderhuis, 『칼빈』, 168.

37) 이은선, “칼빈의 제네바 교회 개혁 활동:목회 활동의 관점에서”, 56.

38) 이은선, “칼빈의 제네바 교회 개혁 활동:목회 활동의 관점에서”, 58.

39)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하면서 유럽 여러 교회에 보내는 편지 “당신들은 통나무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불붙는 장작을 만들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규,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132.





6. 제네바 시의회와 제네바 교회와의 관계

칼빈의 제네바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쉽게 제네바 시 전체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몇 가지 교회규정을 인정하면서 교회가 시의회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아야 함을 서로 합의하는 등의 관계를 통해 개혁은 진행되어 갔다. 이 때가 칼빈에게는 투쟁의 시간이었다.

많은 이들이 제네바를 신정정치의 도시로 보았다. 그러나 성직자에 의한 통치라는 의미에서의 신정정치는 결코 아니었다. 칼빈에 의해 통치되는 도시가 아니었다. 칼빈의 제안이 시의회에서 묵살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에 의해 통치되는 도시라는 의미에서 신정정치라면 그런 모습은 제네바에 있었다.⁴⁰⁾ 즉 “교회활동은 하나님의 구속활동에 속하고 세상정치는 하나님의 창조활동에 속한다. 이 두 활동은 한 하나님의 활동으로서 분리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구별되어야 한다.”⁴¹⁾ 제네바시가 하나님의 주권아래 있다고 본 것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의미한다면 국가는 하나님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둘은 구별되어야하나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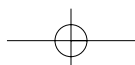
7. 칼빈의 국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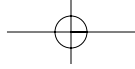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칼빈은 국가에 종교적 기능, 사법적 기능, 사회적 기능이 있다고 보았다.⁴²⁾ 칼빈은 이 국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이는데 칼빈의 국가관은 그의 기독교강요의 1536년 초판과 1559년 판에서 서로 상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초판에는 국가의 기능을 ‘인간들 사이의 화해를 도모하며, 사회의 공적인 평화를 유지하

40)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7), 247.

41)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247.

42) Arnold B. Come, 문전섭 역, “칼빈주의적인 개혁교회의 국가관”, 『기독교사상』제361호(1989), 170-174.





기 위협'이라고 기록하였다.⁴³⁾ 그러나 1559년 판에는 “국가는 하나님께 대한 외적인 예배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지위를 수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⁴⁴⁾ 칼빈의 국가관은 제네바시 개혁 이후 국가가 기본적인 사회적 평화유지에서 나아가 예배존중과 보호의 의무를 다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칼빈은 『제네바교회가 사용하는 신앙교육서』(1537)에서 위정자의 직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따라서 군주들과 위정자들이 그들의 직무에 있어서 누구를 섬기지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대리인으로 부당한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의무이다. 그들의 거의 모든 배려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있어야 한다. 곧 종교의 공적 형식을 진정 순수함으로 보전하는 것, 매우 선한 법률로 백성의 생활을 확립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신민들의 행복과 평온을 공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의와 재판 외에는 얻어질 수 없는 것으로 선지자가 그들에게 주로 권한 두 가지 것이다(렘22:1-9).⁴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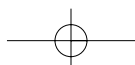
여기서 같은 제네바시를 개혁한 파렐의 위정자에 대한 인식을 그의 『제네바신앙고백서』(1537)에서 또한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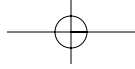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우리는 왕과 군주들뿐만 아니라 다른 위정자들과 고위층의 우월함과 지배가 거룩한 것이요, 하나님의 선한 규율로 여긴다. 그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행하면서 고통당하는 자와 무죄한 자들을 변호하면서도 사악한 자들의 악을 고치고 처벌하면서도 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기독교적 소명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들에게 영예와 존경을 표하고, 순종과 복종을 바치며 그들의

43) Calvin, *OS I*, p. 259. (= *Inst* 1st ed. 6, c. 36) 안의섭, “어거스틴과 칼빈의 국가관: 『신국론』과 『기독교강요』를 중심으로”, 『신학지남』 제72권3호(2005), 252 재인용.

44) 안의섭, “어거스틴과 칼빈의 국가관: 『신국론』과 『기독교강요』를 중심으로”, 252.

45) 박건택, 『칼뱅작품선집(II)』(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9), 389.





명령을 실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그들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⁴⁶⁾

앞에 살펴본 칼빈과 동역자 파렐의 국가관은 칼빈의 제네바시와 교회와의 관계성 속에서 인식해야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국가는 교회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 『기독교강요』의 초판과 1559년 판의 대조에서도, 칼빈의 『제네바교회가 사용하는 신앙교육서』와 파렐의 『제네바신앙고백서』를 통해서 볼 때도 국가의 의무는 상당히 교회의 보존과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칼빈은 국가가 교회수호의무를 가진다고 보았다. 그러니 제네바에서 시의회는 오늘날 말하는 세속정부가 아니었다. “그 온 시민이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고백을 하고 자녀들을 교회의 교육 계획에 따라 양육하고 또 교회의 윤리규정이 바로 시민이 이행해야 할 규정이었기 때문에, 시 정부는 교회가 할 일을 충실히 이행 추진하는 추진력이었다. 그것은 시민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회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고 바른 신앙을 받아들여야 되었다.”⁴⁷⁾ 하나님의 절대주권아래에 교회와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에 제네바의 신정정치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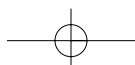
더욱이 칼빈은 교회개혁을 통한 제네바개혁을 시도했다. 교회규정을 통한 질서와 훈련의 확립을 통해 교인의 성화와 사회의 도덕의식고취를 이루어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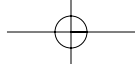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Ⅵ. 오늘날 한국교계의 성시화운동의 새로운 방향모색

한국교계의 성시화운동은 도시복음화 운동이며 복음화를 통한 성시화운동이다. 이는 홀리클럽을 조직해서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메소디스트적 운동이다.

46) 박건택, 『칼뱅작품선집(Ⅱ)』, 403.

47)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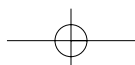
물론 교회연합운동이라는 차원에서 교파적 이해를 앞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성시화운동은 개혁주의적 운동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 개혁주의적 운동은, 특히 칼빈이 말한 제네바개혁은 교회규정을 통한 교회개혁이다. 훈련과 질서 확립을 통한 제네바시의 개혁운동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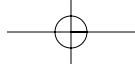
지금의 성시화운동의 비판적 단면은 정치세력화이다. 교회연합운동을 넘어서 정관계인사들의 참여를 통한 정치적 운동모습을 띄고 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성시화운동의 전제는 정관계인사의 복음화 내지는 신자의 정계진출을 통한 도시의 복음화, 성시화가 하나의 목적이 된다. 하지만 이는 칼빈의 제네바시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당시 제네바는 교회뿐만 아니라 시의회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속에 있어야 했다. 그래서 교회의 개혁을 통한 장로교적 직제인 네 직분을 통한 개혁이 제네바개혁의 힘이 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는 칼빈 당시의 제네바 시의회가 아니다. 종교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정부다. 행정부의 수반이 네 직분중 하나인 자라도 종교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의 정부일 뿐이다. 절대 종교적 상관관계가 없다.

본 연구자는 한국교계의 성시화운동의 배경이 칼빈의 제네바개혁과는 상관관계가 없음을 주장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죄악된 세상을 이대로 버려두는 것이 개혁교회의 입장이 아니다. 칼빈은 그의 책에서

영적 통치는 지상에 있는 우리 안에 이미 하늘나라가 시작되게 만들며, 이 죽을 덧없는 생명 속에서 영원불멸의 복락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국가 통치에 지정된 목적은,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사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외적인 예배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지위를 수호하며, 우리를 사회생활에 적응시키며, 우리의 행위를 사회 정의와 일치하도록 인도하여, 우리가 서로 화해하게 하며, 전반적인 평화와 평온을 증진하는 것이다.⁴⁸⁾

48) 『기독교강요』, 4.20.2.





이제 한국교회에 불고 있는 성시화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보자. 민족복음화, 도시복음화라는 대의와 도덕의식의 고양이라는 의지는 초교파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운동이 정치 세력화되어 일각의 비판을 받고 있는 지금 오히려 본 연구자는 다음의 것으로 성시화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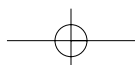
첫째 교회는 스스로의 개혁을 이루어야한다. 자정능력을 빨리 회복해야한다. 무질서한 제네바에 성경적 질서를 교회개혁으로 세운 칼빈의 노력에 한국교회는 귀를 기울여야한다. 그러기에 교회규정과 같은 교회 치리권의 확립이 필요하다. 한국교회가 교인들의 신앙적 훈련을 뒷전으로 한 채 내놓는 어떤 시대적 대안도 종교적 다양성이 존재하는 한국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개혁교회는 말씀의 진리인 교리를 바르게 수호하고 지켜나가야 한다. 바른 성례의 집행과 말씀을 통한 신앙교육으로 교회의 자력을 키워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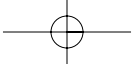
둘째 정부에 정당한 요구를 해야 한다. 이미 다양성이 존재하는 한국사회의 정부는 진리수호의 의무를 물을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는 우리의 행위를 사회 정의에 일치하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의 정부가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가도록 요청하는 것은 이제 교회의 몫이다. 장로교회의 신앙고백 중 하나인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문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제23장 1항) 온 세계의 주가 되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과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자기 밑에 세우사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셨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칼의 힘으로 그들을 무장시키셔서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행악자들을 처벌하도록 하셨다.⁴⁹⁾

교회는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선한 자들의 보호와 행악자들의 처벌

49) 김의환, 『개혁주의신앙고백집』(서울: 생명의말씀사, 2003), 159.





을 요구해야한다. 즉 도덕의식고양을 촉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위정자 곧 정부가 교회와 같은 신앙을 갖지 않더라도 존중하고 그 마땅한 순종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제23장 4항)⁵⁰⁾

칼빈의 교회개혁을 통한 제네바시의 신정통치는 교회의 바른 질서와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질서와 훈련을 위한 교회개혁을 통해 오늘 우리의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참 모습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혁률, “서울성서화운동과 여론”. 『새가정』제53권, 2006, 3.
 김의환, 『개혁주의신앙고백집』.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3.
 김준곤, 『성서화운동 편람』. 서울: 순출판사, 2005.
 박건택, 『칼뱅작품선집(Ⅱ)』.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9.
 ———, 『칼뱅작품선집(Ⅲ)』.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9.
 안의섭, “어기스틴과 칼빈의 국가관: 『신국론』과 『기독교강요』를 중심으로”. 『신학지남』72권3호 2005.
 염시동, “웨슬리와 홀리클럽 운동에 관한 연구”. 『대학과 복음』 3제권, 1999,12.
 이상규,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부산: 고신대학교출판부, 2007.
 ———, 『교회개혁사』. 서울: 성광문화사, 1997.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7.
 이은선, “칼빈의 제네바 교회 개혁 활동-목회 활동의 관점에서-”. 『신학지평』제4권, 1996, 12.
 임성택, “성서화운동에 대한 연구와 전망”. 총신대학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
 황대우, 『칼빈과 개혁주의』. 서울: 도서출판칼뱅, 2009.
 Calvin, John. 김종흡 등 역, 『기독교강요 하(下)』.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2.
 Come, Arnold B. 문전섭 역, “칼빈주의적인 개혁교회의 국가관”. 『기독교사상』제361호, 1989,1.
 McNeill, John T. 양낙홍 역,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6.
 Selderhuis, Herman J. 조승희 역, 『칼빈』. 서울: 대성닷컴, 2009.

50) 김의환, 『개혁주의신앙고백집』, 160.

